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 NEWSLETTER



연락처: 312-985-6050

kasanctuarychurch@gmail.com

### <제 3호>

#### 순서

- 위원 칼럼: 손식 KA-VOICE 대표
-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활동 소식
- 이민법 및 행정사항 업데이트
- 협력 기관 소식
- 한인 유권자 선거독려 세미나: <선거참여는 이민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위원 칼럼

## 2020년 선거를 맞이하며.

손식 대표 (KA-VOICE)



2020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각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일리노이 쿡 카운티에 사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올 해 선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올해가 우리 한인들이 한글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가 가능하게 된 첫 해이기 때문이다. 많은 한인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언어장벽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노력의 결실로 한글 투표용지가 나오게 된 것이다. 2015년에 “2016년 미국 선거는 한글 투표용지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KAVOICE 주도로 한글 투표용지 캠페인을 시작해서 2019년 10월 쿡카운티에서 한글 투표용지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까지, 연수로 5년이 걸린 셈이다.

우리 한인들이 한국 뉴스만 보고 한국 커뮤니티안에만 머무르면서, 미국 내 자그마한 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 속에 미국 사회의 주인으로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 자각 속에 한글 투표용지 캠페인은 시작됐고, 끈질긴 노력으로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나 선거 참여 캠페인을 하다보면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나가는 한인들에게, 학생들이 유권자 등록 하셨냐고 물어봤을때, “난 그런 거 안해요!” 라고 답하시는 경우다. 학생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답변인 것이다. 어렵게 얻어낸 투표권, 그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너무나 당당히 이야기 하는것에 학생들은 당황스러워했다.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보자. 부모님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에 갖다 주고, 그 매니저가 알아서 돈을 쓰고, 돈을 벌어서 부모님들은 아무 권한이 없고, 매니저가 시킨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 상황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선거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나라의 살림을 위해 세금을 내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민주주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최고의 민주주의 형태이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는 자신의 발언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거 참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 집 주위가 청소가 안 된다면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집 옆 샛길 아스팔트가 엉망이 됐는데 왜 안 고치는지?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영어가 부족한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기가 부담스러울 때, 학교측에서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아 문화, 한국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되고 있는지? 지역 경찰이나 소방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중 아시아계가 있는지?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고 선거 참여는 바로 그 첫 걸음인 것이다.

한국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은 한인 1세대들 중 많은 분들이 선거 참여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 운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 참여는 커뮤니티에 살아가고 있는 미국 시민으로서, 유권자로서, 자신의 커뮤니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활동인 것이다.

2020년 선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우리 동네가, 우리 직장이, 우리 아이들 학교가 보다 나은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겠다.

---

## 이민법 및 행정 업데이트

- 이민국(USCIS)
  - 1) H1 비자 발급율이 30% 감소 하였으며 올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2) 10월 2일부터 시민권 신청금 인상 (현 \$643 에서 \$1,170 으로 상승)
  - 3) COVID-19 영향으로 2021년 1월 1일까지 기한인 RFE 에 대한 데드라인 60일 연장
- DACA 업데이트:
  - 이민국 현재 신규신청 거부 입장
  - 연장신청시 프로그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축소
  - 갱신 수수료는 \$495 유지
  - 만료 150일 이전 신청서는 기각 예정이며 현 수혜자는 DACA/EAD 만료 150일 - 120일 사이 신청 권고
- 7월 31일 기준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케이스가 989 건인 것으로 집계. 캘리포니아가 385명으로 최대이며 일리노이는 25명으로 추산
- 공적부조 (Public Charge): 연방법원이 7월 코비드19 기간동안 공적부조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으나 항소법원에서 (9/11) 트럼프 정부의 공적부조 신규규정을 적용해도 된다고 발표. 이에 이민국은 10/14일부터 I-944 (공적부조에 관한 서류)가 없을시에 신분조정신청서를 거부하겠다고 발표.

---

## 이민자 보호교회 활동소식

- 이민자보호교회 주관 서류미비 싱글맘 렌트비 지원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는 서류미비 상태의 한부모(싱글맘) 가정을 위한 렌트비 지원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부터 1차로 1가정을 선정해서 지원을 시작했고, 9월부터 2차로 3가정을 선정 총 4가정을 위해 렌트비 일부를 보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선정된 가정에 1년간 월 \$500 씩 렌트비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카고 이보교는 이를 위해 현재 총 24,230달러 상당의 후원금을 마련했고, 계속 후원금을 늘려 모금액에 따라 지원가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 교회들과 인근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기대한다.

(후원 참여 문의: 312-985-6050)

- **한인 선거 참여 독려 세미나**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는 10월 5일과 12일 월요일 양일간 한인들의 선거참여 독려를 목적으로 안일섭 목사와 KA-VOICE, 하나센터를 초대하여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투표를 통해 시민사회에 참여하는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임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 링크를 통해 등록하면 ZOOM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http://bit.ly/KASNCivic> (page 4 포스터 참고).

- **쿡 카운티 국선변호사 사무소 이민법부서 창설을 위한 캠페인**

쿡카운티 국선변호사 사무소에 이민법 부서를 창설하기 위한 캠페인에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가 한인이민자 공동체와 종교인들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본 캠페인은 형법사건에 대한 재판시 그 결과가 이민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이민법 전담 부서 창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 \$250,000의 예산을 확보해 이민법 부서를 시작하고자 한다.

---

## 시카고 기관소식

### 하나센터

1.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지원금:
  - 하나센터는 사립재단을 통해 모금한 금액 및 ICIRR가 진행하는 주정부 지원금에 대한 접수를 돕고 있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미비 한인가정 중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glo@hanacenter.org](mailto:glo@hanacenter.org) 로 문의 후 도움받을 수 있음.
2. “공정한 세금” 에 대한 11월 주민 투표 광고 및 한인공동체 아웃리치
  - 11월 대선시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공정세금 개혁안”에 대해 쿡카운티 거주 한인들에게 전화를 통한 광고 및 선거참여 방법 교육 캠페인 진행 중

### KANWIN

1. Share 1 Campaign (쉐어 1 캠페인) : 10월10일, 오전10시-12시. H Mart (나일즈점) 앞.
  - KAN-WIN (여성하라인)은 무 의료보험, 불안한 고용 및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코비드-19 대유행병 상황에 더욱 취약한 의뢰인과 그 자녀들의 비상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쉐어 1 캠페인'을 진행.
2. #DVAM (가정폭력 인식의 달) 온라인 기자 간담회: 10월 1일 (목) 오전 10시 - 11시 30분
  -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KAN-WIN의 주요 사업 및 피해자 서비스 소개 및 앞으로 집중할 프로그램 안내.
3. 제9차 동료 옹호 지도자 교육 : 10/28, 11/2, 11/4, 11/9, 11/11, 오전 9시30 - 11:30 (온라인)
  - 이 동료 옹호 지도자 교육 (Peer Advocate Leadership, 줄여서 PAL) Program은 KAN-WIN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지역사회에 만연한 각종 젠더 폭력에 대해 1회 2시간씩 5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교육 참여자가 자신이 배운 내용을 가족, 친지, 지역,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Peer to Peer (전달)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등록: <http://bit.ly/the9thPAL> / 문의: 정혜윤 ([hychung@kanwin.org](mailto:hychung@kanwin.org), 773-510-3828).
4. KAN-WIN의 제8차 “위안부” 기림일 집회
  - 08월 5일 (수)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위안부 정의 실현을 위한 행동을 진행.

### KA VOICE

1. 한인 조기 투표의 날 행사
  - 10월24일 조기 투표의 날 행사, 글렌뷰 빌리지홀에서 진행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Christian & Citizen Webinar

이민자를 위한

선거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2020년 10월 5일 & 12일, 월요일 7:30~9:00PM

1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참여에 관한 기독교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번 선거 참여 과정과 방법 및 Fair Tax 법안 투표를 위한 실제적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강의: 안일섭 목사 (North Park University, 철학, 윤리학 교수)

일정: 10/5 주제강의(1) 후기식민주의와 교회의 역사적 책임  
& 일리노이 한인 선거참여운동 역사와 11월 투표 참여의 중요성(KA VOICE)

10/12 주제강의(2) 트럼프 시대와 교회의 정치적 책임  
& Fair Tax 법안의 의미와 필요성 (하나센터)

등록: <http://bit.ly/KASNCivic>

등록한 이메일로 ZOOM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이민자보호교회  
Sanctuary Church

Christian & Citizen

문의: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312-985-6050